

정념 스님(오대산 월정사 주지)  
수행, 문화, 복지의 조화  
산중불교의 미래  
16·17면

#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금 현재를 관찰해보면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다.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9월 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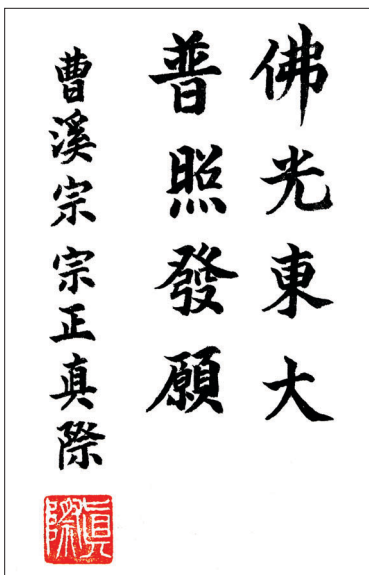
제1011호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 동국대 108주년 불사 '눈길'

10월 8일 기념관 건립불사 선포·후원의 밤 개최

동국대가 건학 108주년을 맞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10월 8일 서울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건학 108주년 기념관'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 동국대가 건립을 추진하는 '건학 108주년 기념관'은 지하철 동대입구역부터 혜화문 부지에 걸쳐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27,088㎡ 규모로 건립된다. 동국대는 이번 첨단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불교정신을 기반으로 108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건학108주년 기념관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불교와 전통문화 콘텐츠를 융화시킨 불교전통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 산발적으로 자리한 박물관, 불교학술원 등을 한

군데로 모아 한국불교 연구, 교육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불사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앞장섰다. 진제 스님은 9월 13일 동화사에서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의 예방을 받고 '불광동대(佛光東大) 보조발원(普照發願)'이라는 친필 휘호와 함께 금일봉을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불교를 살찌우는 것이며, 동국대학교를 육성하는 데 모든 불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108주년과 기념관 불사를 널리 알릴 홍보대사 위촉식도 열었다. 9월 17일 동국대 본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동국대 출신 연예인 이덕화, 강석우, 이경규, 김상중, 남성진, 유준상, 조여정, 소유진, 윤아, 서현, 허



진제 스님의 '불광동대 보조발원' 휘호

기념관, 불교 연구 산실로  
스타 문물들 홍보대사 위촉  
10월 25일 불사봉행대회도

가윤, 손나은 등 19명이 위촉됐다. 홍보대사들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머그컵 사인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이덕화 씨는 "졸업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행사 때마다 학교에서 불러주셔서 고맙다"며 "후배들과의 향기로운 만남이 자주 이어지길 바라며,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들 홍보대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국대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사인(sign) 머그컵을 축제 기간 동안 총학생회에서 개최하는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한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10월 25일 오후 3시 교내 운동장에서 불사봉행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모연에 나선다. 불사 증명은 조계종정 진제 스님을, 고문은 이사장 정연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을 위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가난한 이들도 장애인도 함께 살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17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2014년 시민초청 무차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자승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빈곤사회연대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무차대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단체 회원, 쪽방주민, 홀리스타 학생, 빈곤층 어르신, 거리노숙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현 기자

## "달라진 종회 선거법 숙지해 주세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 개정 선거법 숙지 당부

오는 10월16일 열리는 제16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법을 숙지해줄 것을 중도들에게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겸 자승 스님은 9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중앙총회의원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처리되는 첫 선거"라며 "개정된 선거법 절차를 숙지해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제37조에 따라 제16대 중앙총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자격심사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제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은 9월30일~10월1일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가 끝난 직후부터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다른 교구에서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투표자가 직접 서면신청을 해야 한다. 투표구를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교구에서 투표할 수 없다.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권에 대해 당해교구의 재적승과 본말사 주지, 교구본사에서 국장 이상의 총무원을 1년 이상 상근한 자, 당해교구에서 4년 이상 거주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제37조에 따라 제16대 중앙총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자격심사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제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은 9월30일~10월1일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가 끝난 직후부터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다른 교구에서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투표자가 직접 서면신청을 해야 한다. 투표구를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산중총회에 참석해 정명을 한 경우 투표구 신청에 관계없이 4년 이내 투표권 행사 교구에서 투표해야 한다. 이에 2010년 10월 제15대 중앙총회의원 선거 이후 본인이 총회의원 보결선거 및 산중총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한 교구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며, 본인이 4년 이내에 선거권을 행사한 경우 투표구 신청을 선거권 행사교구로 해야 한다. 타교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경우 투표구를 신청하더라도 선거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거주승 투표권도 크게 제한된다. 지난 15대 선거에서는 다른 교구의 스님이라도 해당 교구관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선거권이 부여됐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4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해당교구에서 시행한 결계표살에 8회 이상 참석하거나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을 한 자로 한정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거주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송담 스님 탈종부터 주지 인사 논란까지 조계종·용주사 '큰 부담'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월)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용주사 문중의 가장 큰 어른인 인촌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과 문도 스님들 10명이 제직원을 제출했고, 지난 주지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성관 스님이 주지로 있던 수원사의 주지 교체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월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상 접수했지만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중 최고 어른의 제직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늘 중 용화선원을 찾아서 제직원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담 스님의 탈종 이유 중 하나가 용주사 주지 선거로 빚어진 잡음이었고, 이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수원사 주지 품선은 총무원과 용주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원사 신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사는 1986년 성관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래 30년 동안 끊임없는 불사를 통해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사찰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선거 할달만에 특별한 이유없이 주지를 교체한 것을 신도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탈종 진의 파악 못해 전전긍긍 (재)법보선원 이사장 송담 스님과 문도 이사 스님 등 10명은 재단 법정 대리인인 허은강 변호사를 통해 9월 19일 제직원과 승려증을 당해 본사인 용주사에 제출했다.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탈종공고도 다른 교계 언론에 게재했다. 이를 통해 송담 스님과 문도 스님들은 제직원을 제출하는 사유로 "재단법인 법보선원의 수행전통과 조계종의 수행전통이 맞지 않아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로서 의무와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탈종한다"고 기술했다.

송담 스님 등 제직원 제출 총무원장·수좌회 면담 위해 동분서주... 성과는 없어 조계종, 17일 총무회의서 수원사 주지 세영 스님 품선 신도회 18일 비판 공개서한

무엇보다 이번 주지 교체는 사실상 농공행상에 따른 인사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용주사는 수탈사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새 주지를 품선했었다. 이는 문중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수원사 주지 품선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반발은 우려해 관계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진행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원사 신도회는 공개서한을 통해 "본사주지 선거가 끝난 후 당선 반발을 우려해 관계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진행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같은 비판과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용주사는 19일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성민 기자

하지만 용주사는 제직원을 처리하지 않고 용화선원에 돌려놓고 반려했다. 제직원 접수 직후 용주사 주지

종단 선지식의 탈종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송담 스님을 만나기 위해 18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용화선원과 평소 주석처를 찾았지만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해결에 나서겠다는 전국선원수좌회도 송담 스

# 영축문화축제

1369주년 개산대재

불기 2558년 10월 2일(음 9월 9일)

10월 1일 부도헌다  
10월 2일 괘불이운, 법요식, 작은 음악회  
10월 3일 어린이 수계식, 작은 음악회, 재롱잔치  
10월 4일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10월 5일 다문화공연, 작은 음악회  
10월 1일 ~ 10월 5일 국화장엄, 체험행사, 가사배견, 괘불탱전

문의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 055) 382-7182 F 055)382-7196 W www.tongdosa.or.kr

# 생전예수재 및 가사불사

가사 불사	입 재 2558년 9월 28일(음 9.5) 오전 10시 회 향 2558년 11월 14일(음 윤 9.22) 오전 10시 동참금 스님 지정 50만원, 대가사 10만원, 오조가사 5만원 * 스님을 지정하여 가사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생전 예수재	입 재 2558년 9월 28일(음 9.5) 오전 10시 회 향 2558년 11월 16일(음 윤 9.24) 오전 8시 동참금 설판 100만원, 동참 5만원, 영가 1위 1만원 문의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 명 합장